



보도시점

2026.9.30.(수) 12:00
(2026.10.1.(목) 조간)

배포

2026.9.30.(수) 09:00

범정부 협력으로**미래기술 선점과 R&D 혁신에 속도 낸다**

- 배경훈 부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7대 SEED 프로젝트,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분야별 추진체계 및 방안 마련
- R&D 성과의 해외 원천·표준특허 및 수익화로 연결을 위한 R&D-IP-사업화 혁신 지원
- 투자, 평가, 대학R&D, 성과확산 등 연구생태계 토대 마련을 위한
범부처 대체불가 R&D 혁신기반 강화방안(LAND for 7 SEED) 수립
- AI 기반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K-문샷 전략 로드맵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3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지식재산 (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목록 >

- 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②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③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LAND for 7 SEED)(안), ④ K-문샷 전략 로드맵(안) 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AI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는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라며,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I 연구 개발과 산업·일상에서의 활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딥페이크·사이버 위협·개인정보 침해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1년 전 과학기술·AI 분야 부총리체제가 출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필두로, 독자 AI 모델 개발과 첨단 GPU 공급 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를 본격화해 왔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며 범정부 협업을 강화해 왔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출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국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내재화하기 위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정부 R&D 투자가 연구생태계의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전략(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K-문샷 전략 로드맵(안)」과 '25년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그간의 회의 운영과 주요 안건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안)」도 상정되었다.

<안건1>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정부는 8.12일 대통령 주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7대 첨단기술**을 발표하였으며,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개 부·처·청·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체계 구성, 재정투자,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7대 SEED 프로젝트의 ‘기획-투자-실행’의 통합적 지원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부처 및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한다.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점검하며,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 관심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화된 이행전략을 연내 도출한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27년 4.0조원의 재정을 투자(정부 예산안 기준) 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나누는 투자형 R&D를 확대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을 적극 투자하며,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 목표와 부합하도록 재정비를 추진한다.

SEED별 특화 창업지원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기업 성장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연구장비 국산화도 추진한다. 규제부처와 소통을 통해 규제 선진화·합리화를 추진하며, 국제표준 선점도 병행한다.

<안건2>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제2호 안건으로는 국가 R&D 기획·수행부터 글로벌 원천·표준특허 확보,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식재산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특허·표준 선점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특허 중심의 국가 R&D 특허성과를 해외·표준특허 확보로 전환하고 사업화 성과로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①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②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③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의 특허동향과 유망기술 분석을 혁신로드맵에 반영하고, 피지컬 AI 분야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지도 구축과 글로벌 IP 선점 필요성이 큰 R&D 핵심과제에 IP-R&D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특허 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구축해 연구개발의 핵심재료로 활용하고, 분야별 에이전틱 AI 접목을 통한 고효율 R&D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글로벌 K-IP 핵심특허’ 확보를 추진해 우수 공공기술의 글로벌 특허망 구축을 지원하고,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IP 확보 지원 및 피지컬 AI 등 미래유망 분야 표준특허 확보·활용을 위한 K-특허풀 구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TLO의 사업화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TLO 역량에 따라 수준별·단계별로 지원하며, IP 전담관(IP Specialist) 육성, IP-TLO 얼라이언스 구축, 산·학·연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 IP의 사업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안건3>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안) **[LAND for 7 SEED]**

R&D 생태계 활력과 7대 SEED 등 혁신기술 투자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등 총 11개 연구개발 수행 부처가 함께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 美 ‘Science, a New Golden Age’, 日 ‘통합이노베이션전략’ 등 주요국도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전략에서 연구자 연구몰입 강화, R&D성과 민간확산 가속화 등을 강조

(1) 정부R&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Leading Portfolio) : 5개년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26~30)’을 기준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시행한다. 특히 7대 SEED 등 핵심분야는 투자 초기단계부터 실증·사업화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기획·배분·추진 쏠단계에 다부처 협업을 적극 촉진한다.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적시성·완성도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기획점검도 내실화한다.

(2) **성과창출형 사업평가체계(Assessment)** : 연구몰입 강화, 우수성과 환류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대상 R&D 사업평가로 이어나간다. 기존 이원화 체계(부처 자체평가 - 혁신본부 상위평가)를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하여 연구자와 부처의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R&D 통합사업평가단을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표도 대표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성·절대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예산배분·사업개선 환류 및 후속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R&D 평가가 ‘과급력 높은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대학 일류R&D 체질개선(Next University R&D)**: 대학이 기관 차원에서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을 위한 기관지원형(블록펀딩) 신규사업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임연구원, 장비지원인력(staff-scientist) 등 협업 구조 전환을 위한 인력·장비 구축, 교육부는 기초학문 등의 학문후속세대 연구공백 완화에 초점을 둔다.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 연구장비의 공동활용·개방 등도 추진한다.

(4)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Diffusion & Delivery)** :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성과 이관·추적관리, 구매처 확보, 보증·펀드 등을 연계한다. ‘돈이 되는 사업화 R&D’를 목표로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쟁형 단계평가 R&D를 확대하고, 실증·인증 패키지 지원, 출연연-기업간 협업 등을 촉진한다. 부처별로 나뉘어졌던 기술거래 플랫폼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연동체계로 고도화하고, 지역별 혁신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업 R&D 성과의 회수·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를 본격 도입하고, 혁신기술 조달 관련 개발-구매 연계형 R&D도 추진한다.

<안건4> K-문샷 전략 로드맵(안)

제4호 안건으로는 7대 SEED 및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과학·기술적 허들을 신속히 돌파하기 위해 임무지향 R&D와 과학기술×AI를 결합한 ‘K-문샷’의 마일스톤·산출물을 제시하는 ‘K-문샷 전략 로드맵(안)’이 심의·의결되었다.

* 제2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6.2월) 및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6.3월)에서 논의

해당 안건은 미션별 전략 로드맵과 과학기술×AI를 연계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략 로드맵’은 미션별 PD가 주도하여 국내외 동향,

정부 사업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 및 실증 계획과 마일스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GPU 8천여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배분을 확보할 예정이고, 미션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과 출연연 데이터의 자동 변환 체계 구축(AI-ready) 등 과학기술×AI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등 연내 달성 목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공백 기술 확보를 위한 '28년 신규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안건5>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상정하여 그간의 회의 운영과 안건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현안과 주요 쟁점에 관해 관련 부처가 적시에 집중 논의하는 ‘현안회의’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발표된 안건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김 연 정경화 권대훈	(044-202-6480) (044-202-6482) (044-202-6487)
담당 부서 <안건1>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최윤익 이호준	(044-202-4520) (044-202-4521)
담당 부서 <안건2>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김현수 김철호	(042-481-5258) (042-481-8469)
담당 부서 <안건3>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정건영 노명종	(044-202-6720) (044-202-6724)
담당 부서 <안건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현옥 여동재	(044-202-4620) (044-202-4632)
담당 부서 <안건5>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 연 정경화	(044-202-6480) (044-202-648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시 : '26.9.30.(수) 10:00 ~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 병행

☐ 상정 안건 : 5건

	안 건 명	제출부처
1호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호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3호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안) (LAND for 7 SEED)	관계부처 합동
4호	K-문샷 전략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5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과기정통부

□ 개 요

-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8.12일)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체계, 재정투자,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마련

◆ 정부는 8.12일 대통령 주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7대 첨단기술*에 대해 발표

*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 주요 내용

- ① **(추진 체계)** 과기장관회의(의사결정), 범부처·민관합동 추진체계(총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신속한 '기획-투자-실행' 지원
 - 분야별 주관부처는 정부, 연구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프론티어 보드)를 구성하고 목표와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이행전략 수립(연내)
- ② **(재정 지원)**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27년 약 4.0조원을 투자, 민관합작 투자(투자형 R&D) 추진 및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연계
 - 기존사업은 재정비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제도 적용 우대
- ③ **(창업·사업화 지원)** SEED별 사업화 환경을 고려한 특화 창업전략 추진, 연구자-기술-투자 보육을 핵심 축으로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강화
 - * 창업전주기 밀착지원, 연구실의 기술역량 개방, 민간 AC·VC 집중 육성
- ④ **(금융·IP·실증 지원)** 국민성장펀드(초장기기술투자펀드) 등으로 10년 이상 초장기 투자, 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지원,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추진
- ⑤ **(규제·표준 확립)** SEED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규제·표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분야(양자, 우주항공)는 국제표준 선점에 주력
 - * SMR·핵융합 특성 반영 규제체계 마련(원안위), 차세대 태양광 및 청정수소분야 규제 합리화(기후부), R&D 기획부터 규제 자문(식약처)

□ 향후 계획

- 주관부처 중심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이행전략 도출(연내)

□ **개 요**

- 국가전략기술 특허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국가 R&D 특허출원의 87%가 국내에 집중되는 등 해외 원천·표준특허 및 사업화 연계는 미흡

* 12대 전략기술 세계 특허출원(건) : ('14) 61,560 → ('23) 178,791건(10년간 3배 ↑)

- 글로벌 패권경쟁과 AI×데이터 기반 연구혁신*에 대응해 특허데이터를 활용, R&D 기획·수행부터 글로벌 IP 확보·사업화까지 연결하는 혁신체계 구축

* (韓) K-문샷('26.2), (美) 제네시스 미션('25.11), (中) AI+ 이니셔티브('25.8)

□ **주요 내용**

① (전략1)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추진

- 전략기술 글로벌 특허동향·유망기술을 분석해 혁신 로드맵에 반영하고, 퍼지컬 AI를 시작으로 국가 특허전략 지도 구축을 단계적 확대
- R&D 핵심과제에 IP-R&D 연계를 확대하고, 특허정보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여 AI-IP 솔루션 개발, 현장 적용 등 고효율 R&D 지원

② (전략2) 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 글로벌 핵심특허(K-IP) 확보를 추진하여 우수 공공기술을 선정하고, 권리설계·핵심국 진입·권리보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원천특허망 구축
- AI·로봇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확대하고, 소버린 AI·휴머노이드 표준 연계 특허전략 지원, 대학·공공연 미활용특허 고도화·기술거래 촉진

③ (전략3) 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

- TLO의 발명인터뷰·특허출원·IP사업화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TLO 역량 수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맞춤(밸류업) 지원
- TLO·연구사업단 IP 전담관(IP Specialist) 육성, IP-TLO 얼라이언스 구축·활성화, 산학연 맞춤 IP 활용 교육을 통해 IP 사업화 전문역량 강화

□ **향후 계획**

- ('26) 퍼지컬 AI 특허전략 지도, R&D-표준·특허 연계, TLO 표준매뉴얼 등 추진, ('27~) 특허전략 지도 확대, 핵심과제 IP-R&D 연계 검토, 글로벌 K-IP 확보 등 추진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

- LAND for 7 SEED -

관계부처가 함께 R&D 생태계 활력 강화, 7대 SEED 토대 마련

4대 중점 과제

📖 예산 투자 & 평가 | R&D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투자 효과성 극대화

1
Leading Portfolio
정부R&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 (1)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26-'30)' 중심
미래기술 투자전략성 및 다부처 협업 강화
 - 5년간 200조원 이상 투자, 마일스톤 중심 배분
 - 3대 메가, 7대 SEED 등 핵심R&D 전주기 투자지원(실증, 금융, 조달 등)
- (2) R&D 여타폐지를 뒷받침하는 **대형 연구형 R&D 기획·컨설팅 강화**

2
Assessment
성과창출형
R&D사업
평가제도



- 현장 평가부담은 덜고, 평가결과는 환류되는 선순환을 위해,
과제평가 등급제 폐지에 이어 **R&D 사업 통합평가** 추진
- (1) **R&D사업 통합평가단**: 행정부담 완화, 평가 전문성 강화
 - (2) **평가지표 개선**: 정성·절대평가 중심 전환
 - (3) **평가결과 환류**: 예산배분·사업개선 연계 강화

🔧 민간 전달 & 확산 | 대학은 연구역량 축적, 기업은 연구성과로 성장 가속화

3
Next University R&D
대학 일류R&D
체질개선



- (1)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블록펀딩 지원**('27년 신규)
 - 첨단과학 연구역량 축적(협업형 인력구조) + 기초학문 기반 강화
- (2) 연구기반 확충 지원 **법적 토대 마련**
- (3)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4
Diffusion & Delivery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



- (1) **범부처** 사업화·확산 **패스트트랙 도입**
- (2) 시장가치를 반영한 **'돈이 되는 R&D' 기획**
- (3) 기술사업화 **성과 교류·환류 강화**(One-stop Tech-HUB)
- (4) R&D성과 회수·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 본격 도입**
- (5) 혁신기술 축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 추진 배경

- 美, EU, 中 등 주요국은 AI 패권 경쟁 속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과학 AI 기반 국가 주도 임무 지향 R&D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
- 우리는 대도약을 위한 3대 MEGA·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임무 중심 R&D와 과학 AI를 결합한 K-문샷으로 목표 달성 지원

□ 주요 내용

① 과학기술×AI 연계 K-문샷 지원 체계 고도화

- (데이터) 출연연 실험 데이터 AI-ready 자동 변환 지원(핵융합연 K-STAR 우선 지원, '27~), 보안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안전 분석 환경 구축
- (모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과학 추론에 특화하여 고도화하고, K-문샷 미션별 연구 수요 기반 도메인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지원
- (컴퓨팅파워) 슈퍼컴 6호기(GPU 8천여장 규모) 중심 기관 간 GPU 네트워크를 구축('26.4Q~)하고, K-문샷 미션 전용 배분 확보

② K-문샷 전략 로드맵

- (주안점) SEED·MEGA 프로젝트의 과학·기술적 허들을 신속히 돌파하기 위해 임무지향 R&D와 과학기술×AI를 결합한 K-문샷의 마일스톤·산출물을 전략 로드맵으로 제시

※ 총괄지휘자(PD)가 부재중인 AI과학자 미션은 추후 별도 발표 예정

미션	과학 난제(SEED·MEGA)	K-문샷 핵심 전략
신약	생명 실험의 고비용·장기간 구조	설계 가속 : 바이오 AI 모델암면역 미세환경 '28 검증 가속 : 신약 AI 자율실험실('29)
핵융합	복잡한 플라즈마 계산으로 설계·건축 장기화	AI 가상 핵융합로 플랫폼 구축('29) → 혁신 핵융합로 설계 50% 단축('32)
SMR선박	고비용·실현성 문제가 있는 SMR 실험 실증	AI 기반 범용 SMR 가상 원자로 개발('29) → SMR 선박 특화 개발·검증 플랫폼 구축('32)
피지컬AI	사용자 체감이 가능한 인간 수준 피지컬AI 필요	제한 환경·반복작업 피지컬AI 확보('27) → 세계 최고 수준 범용 피지컬 AI 확보('29)

□ 향후 계획

- 미션별 핵심사업 과제 세부 기획(~'26.4Q) → 미션별 공백 기술 기획(~'27.2Q)

□ **운영현황**

- (개최실적) '25.11월(신설)~'26.8월까지 총 12회 개최
- (안전현황) 총 64건의 안전을 논의·확정(심의(44건)·보고(19건)·토의(1건)) 하였으며, 2건 중 1건 이상(61%)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

□ **역할 및 의의**

- (AX 구심점) 실질적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AX 거버넌스 구축, 자원 배분, 전략 실행, 성과 관리를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
- (범정부 협업) 각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부처가 상호 협력하여 안전을 기획→상정→의결하는 범정부 역량 결집
- (핵심어젠다의 지속 보완·발전) 국정과제 등 상위 정책부터 세부 실행계획까지 실행력 높은 정책이 고도화될 수 있는 체계 구현
- (주요정책 사전 검토·조율) 부처 간 이견의 사전 조율·토의, 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추진방안 검토 및 현황 점검
- (현안 논의의 장) 미토스 發 신종 사이버 위협 등 국가적 긴급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플랫폼으로 기능

□ **주요 분야별 상정안건의 이행현황**

※ 상정안건별 이행점검 결과('26.6~9월), 총 64건 중 10건은 완료, 그 외 54건은 정상 추진 중

- (AI 대전환) 산업·공공 전 영역 AX 및 초격차 AI 핵심기술 본격 개발·적용 등 부처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과제 추진 중
- (과학기술·R&D혁신) 연구생태계 혁신, 전략기술 육성, 기초투자 및 연구안보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및 기술 주권 강화 추진 중
- (인재·지역·인프라 확장) 과학기술·AI 핵심인재 육성, AI기반 지역 혁신 촉진, AI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과제 이행 중
- (현안대응 및 글로벌 협력) 마약·사이버위협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AI·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강화

□ **향후계획** : 현안 및 주요쟁점 관련 '현안회의' 신설 및 현장중심 소통 강화